

사람생각!
노동의 공간!
행동하는 지성!

할말은 한다 4호

2018년 4월 27일 금요일 <http://korea.nodong.org> 발행/고대의료원지부 발행인/노재옥 전화/920-5159

고대의료원지부 10대 11대 집행부 이취임식 보고 3천 조합원 시대 열어내고 3대 혁명 일구는 집행부 될 것!



지난 4월 24일(화) 오후 6시, 고대의료원지부 10대, 11대 집행부 이취임식이 유광사홀에서 진행됐다. 이취임식에 내외빈으로 보건의료노조 의료공공성강화 유지현 위원장, 서울지역본부 최희선 본부장 이하 타 지부에서 참석했으며, 박종훈 병원장,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영배 강북구청장이 참석했으며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약 10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한 이취임식은 민중의례로 시작을 열었다.

첫 순서로 이임사를 맡게 된 홍세나 10대 지부장은 노동조합 활동의 소회를 밝히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어진 취임사에서 노재옥 11대 지부장은 “조직강화 위한 3천 조합원 시대를 만들 것, 일터혁명, 의료혁명, 조직혁명의 3대 혁명 만들 것, 노사문화를 재정립 할 것”이라며 결심을 밝혔다. 이취임사가 끝난 후 각계각층에서 격려사와 축사를 전했다.

이취임식 중반을 넘어 시상식이 시작되었다. 공로상은 10대 지부장인 홍세나 지부장이 수상했으며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상에는 안암 응급실 김성애조합원, 서울지역본부장상에는 안암 시설팀 박병서 조합원이 수상했다. 이어 모범 간부상(안암 김용준, 안암 김정문, 구로 박상필, 안산 조옥련), 모범대의원상(안암 이효원, 최소연, 김철중, 최정빈, 구로 이한기, 윤정호, 안산 이광석, 김신중), 모범조합원상(안암 영상의학과 박두석, 안암 영양팀 심연화, 구로 영상의학과 이문배, 안산 영양팀 안은숙), 모범부서상(안암 진단검사의학과, 구로 시설팀, 안산 마취과)등을 시상하는 자리를 가졌다.

영남대의료원 노조 정상화를 위한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 개최



4월 26일 목요일 12시 영남대의료원 로비에서를 개최하고 본격 투쟁을 선언했다.



원) 영남대의료원지부를 돕기위한 기금전달식

오) 12년째 해고중으로 복직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송영숙부지부장

보건의료노조는 간부 및 대의원 250여명, 대구시민사회노동단체 회원 50여명 등 총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해고자 복직과 노조 정상화, 영남학원 민주화'를 촉구했다.

영남대의료원 사측은 2004년 주5일제 도입과 관련한 노사 합의와 단체협약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다가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영남대의료원지부 간부 10명이 해고되고 8명이

정직을 당하고, 조합원 800여명이 노동조합을 떠나게 되었다.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한 해고자들은 12년째 복직을 위한 투쟁을 하고 있다. 우리지부 또한 영남대의료원지부의 노조 정상화와 12년간 해고된 채 투쟁하고 있는 간부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영남대 집회에 함께 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박근혜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영남학원과 영남대의료원이 내세운 노조파괴 전문가 심종두에 의해 불법적인 노조탄압이 기획되고 실행되었다"고 지적하며 "영남대의료원 해고자는 즉시 복직되어야 하며 노조탈퇴는 원천무효"라고 강조했다.

5월 1일, 함께 합시다!

오후 1시 : 보건의료노조 사전집회(세종문화회관 계단)

오후 2시 : 세계노동절 대회(시청광장)